

2017년 지방직 9급 추가선발 시험 C책형(12월 16일 시행)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신라촌락(민정)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를 증시하여 소아의 수까지 파악했다.
- ② 내시령과 같은 관료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 ③ 촌락의 경제력을 파악할 때 유실수의 상황을 반영했다.
- ④ 촌락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관으로 촌주가 파견되었다.

1. 정답 : ④

- ④ 신라 민정 문서를 작성한 지방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아닌 지역 토착 세력이다.
- ① 신라 민정 문서에서 인구는 남녀 각기 연령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역 징발 대상이 아닌 노인과 이린이, 여성까지도 포함하여 6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② 신라 민정 문서에 따르면 촌락의 농민들은 연수유전답, 관모전답, 내시령답, 촌주위답 등을 경작하였다. 내시령답은 중앙 관료인 내시령에게 분급된 토지로, 녹읍 또는 관료전의 성격을 지닌 토지이다. ③ 신라 민정 문서의 조사 대상은 토지와 인구뿐만 아니라 뽕나무, 잣나무 등 수목의 수, 가축의 종류와 수, 특산물 등이었다. 이들이 과세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강은 인도의 근본이니, 군신·부자·부부의 도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유신에게 명하여 고금의 사적을 편집하고 아울러 그림을 붙여 만들어 이름을 ‘삼강행실’이라 하고, 인쇄하게 하여 서울과 외방에 널리 펴고자 한다.

- ①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 ②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적극 중용하였다.
- ③ 국조오례의 를 편찬하여 국가의 예법과 절차를 정하였다.
- ④ 토지 등급을 대부분 하등으로 정하여 전세를 경감해 주었다.

2.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삼강행실도』와 관련된 것으로, 세종 대 편찬되었다.

- ① 조선 세종 대 최윤덕이 4군,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함으로써 현재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 ②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용시켰으며, 그로 인해 김종직과 그 문인이 정계에 진출한 것은 성종 대의 사실이다. ③ 『국조오례의』는 제사 의식인 길례, 관례와 혼례 등의 가례, 사신 접대 의례인 빈례, 군사 의식인 군례, 상례 의식인 흉례의 오례를 정리한 책으로, 성종 5년(1474)에 간행되었다. ④ 토지 등급을 대부분 제일 낮은 등급으로 정하여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시킨 것은 인조 대 제정된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3.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 30년, 달솔 노리사치계를 왜에 보내 석가여래상과 불경을 전했다.

- ①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줄 것을 요청했다.
- ②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 ③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④ 불교를 공인하였다.

3. 정답 : ③

일본에 노리사치계를 파견하여 불상과 불경을 전한 것은 백제 성왕 대의 사실이다.

③ 백제 성왕은 대외 진출을 위해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며 백제 부흥을 도모하였다.

① 개로왕(455~475)은 472년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에 대항하여 중국 북조의 북위(北魏)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국서(결사표)를 보냈으나,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한성이 함락되고 왕 자신도 전사하였다. ②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황해도 남평양)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전사한 것은 근초고왕 대인 371년의 일이다. ④ 백제는 침류왕 대 동진의 마라난타가 유입한 불교를 수용(384)하여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4. 고려시대 토지 종목 중 ㉠에 해당하는 것은?

원종 12년 2월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근래 병란이 일어남으로 인해 창고가 비어서 백관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인(士人)을 권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컨대 경기 8현을 품등에 따라 (㉠)으로 지급하소서.”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공음전                      ② 구분전  
③ 녹과정                     ④ 사패전

4. 정답 : ③

③ 녹과전은 무신 정변으로 전시과 체제가 무너지면서 원종 때 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위해 경기 8현의 토지를 현직 관리에게 지급한 제도이다.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기존 공·사 토지 문서를 모두 소각하고 토지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①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지급받아 대대로 세습할 수 있는 토지이다. ② 구분전은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이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토지이다. ④ 사패전은 왕이 국가나 왕실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한 토지로, 고려 후기에 사패전이 남발되어 토지 제도가 문란해졌다.

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坐食者]가 1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가 멀리서 쌀, 곡물, 물고기, 소금을 저서 날라 공급한다.  
○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어 부경(桴京)이라고 부른다.

- 삼국지 -

- ①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  
② 거처의 좌우에 큰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했다.  
③ 금, 은의 폐물로써 후하게 장례를 치렀으며 돌무지무덤(적석총)을 만들었다.  
④ 신랑은 처가 쪽에 머물며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야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다.

5. 정답 : ①

대가(大家)를 위해 하호가 생산을 담당하고,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는 국가는 '고구려'이다.

- ①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부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우제점법을 행하기도 하였다.  
②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고, 농업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영성 제사와 토지 신에게 제사지내는 사직 제사를 거행하였다. ③ 고구려는 장례 시 금과 은을 모두 소비하는 후장(厚葬)을 지냈으며,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고구려는 “돌을 쌓아 봉하고 소나무를 줄지어 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돌무지무덤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고구려의 혼인 풍습인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다.

6. 밑줄 친 '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인(神人)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아들이니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 그 절에 탑을 세우시오. 그렇게 하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 백제에서 아버지(阿非知)라는 공장을 초빙하여 이 탑을 건축하고 용춘이 이를 감독했다.

- 『삼국유사』 -

- ① 선종이 보급되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웠다.  
② 목조탑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다.  
③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④ 자장 율사가 건의하여 세워졌다

6. 정답 : ④

제시된 사료의 밑줄 친 '탑'은 백제 공장(工匠) 아버지를 초빙하여 건축한 '황룡사 9층 목탑'이다.

- ④ 자장은 선덕 여왕에게 외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였고, 선덕 여왕은 이를 통해 국가와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② 황룡사 9층 목탑은 나무로 지어진 목탑이다. 목조탑의 양식을 간직한 석탑으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

지 5층 석탑 등이 있다. ③ 놀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전탑은 분황사탑이 대표적이다.

7. 다음 사건으로 즉위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목종의 모후(母后)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켰다.

- ① 대장경 조판 사업을 시작하였다.
- ② 지방관이 없는 속군에 감무를 파견하였다.
- ③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 ④ 개성부를 경중(京中) 5부와 경기로 구획하였다.

7. 정답 : ②

제시된 사건은 강조가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정변’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즉위한 국왕은 ‘현종’이다.

- ②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예종 대의 일이다.
- ①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 조조대상성을 조판하기 시작하였다. ③ 현종 때는 불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 계속 융성하여 국력을 기울인 사찰이 많이 건립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현종이 죽은 부모의 명복을 빌게 하기 위해 현화사를 건립하였다. ④ 현종 9년에 성종 때 두었던 개성부를 없애고 대신 경중(京中) 5부와 경기를 두었다. 경기는 다시 개성현과 장단현으로 나누고 개성현에 속현 3개, 장단현에 속현 7개를 두면서 경기의 행정 구역을 정비하였다.

8.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종의 입파인 임제종을 들여와 전파하였다.
- ② 거조암, 길상사 등에서 정혜결사를 주도하였다.
- ③ 우리나라 천태교학의 전통을 원효에게서 찾았다.
- ④ 성속무애 사상을 주장하면서 종단을 통합하려 하였다.

8. 정답 : ③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한 승려는 대각국사 의천이다.

- ③ 원효는 홍왕사를 화엄종의 본찰로 삼아 범상종을 비롯한 교종 불교의 사상을 융합하고자 노력하였고,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토대로 하여 불교 사상을 통합하려 하였다.
- ① 태고 보우에 대한 설명이다. 충목왕 때 보우는 혜근과 함께 원나라에서 임제종을 들여와 전파시켰다. 이로 인해 전통 불교의 범맥은 끊어지게 되었고, 불교계의 주류로 임제종이 떠올랐다. ② 지눌에 대한 설명이다. 지눌은 동료 득재의 초청으로 팔공산 거조암에 머물며 ‘권수정혜결사문’을 짓고 선종과 교종의 승려는 물론 유교, 도교의 사람까지 포괄하는 수행 결사를 조직하였다. 이후 좀 더 넓은 곳을 찾아 송광산 길상사(지금의 송광사)로 옮기고는

업적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며 가르침을 줬다. ④ 균여에 대한 설명이다. 균여의 성속부에 사상은 불교계의 융합은 물론 세속계까지를 융화하려는 강력한 통합사상인데, 성상윤회사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9. 발해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과 지방에 각각 6부와 9주를 두어 다스렸다.
- ② 정당성 아래에 있는 6부가 정책을 집행하였다.
- ③ 중앙의 핵심 군단으로 9서당이 있었다.
- ④ 사정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9. 정답 : ②

② 발해는 당으로부터 수용한 3성 6부 체제의 중앙 관제를 유지하면서, 발해에 맞게 독자적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정당성(정책 집행), 선조성(정책 심의), 중대성(정책 입안)의 3성과 좌사정으로 충·인·의부, 우사정으로 지·예·신부 등 이원적인 6부 체제로 구성되었다.

① 수도를 6부, 지방을 9주로 나눈 것은 통일 신라이다. 발해는 선왕 때 지방 행정 제도를 5경 15부 62주로 완비하였다. ③ 통일 신라는 보병 군단인 6정을 해체하고, 9주 체제에 맞게 9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발해는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었다. ④ 사정부는 신라의 감찰 기관이다. 발해는 감찰 기관으로 중정대를 두었다.

10. 밑줄 친 인물들이 속한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진덕여왕 2년, 김춘추가 돌아오는 길에 고구려의 순라병을 만났는데, 종자인 온군해가 대신 피살되었고 그는 무사히 신라로 귀국했다.
- 마침 알천의 물이 불어 김주원이 왕궁으로 건너오지 못하니, 상대등 김경신이 왕위에 올랐다.

- 『삼국사기』 -

- ① 관등과 상관없이 특정 색깔의 관복을 입었다.
- ②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며 과거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 ③ 죄를 지으면 본관지로 귀향시키는 형벌이 적용되었다.
- ④ 중앙 관부와 지방행정 조직의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10. 정답 : ④

김춘추, 김주원, 김경신 등은 신라의 진골 귀족이다.

④ 진골 귀족은 중앙 장관직인 령과 증시에 오를 수 있었으며, 지방 행정 조직의 장관직인 도독에 임명되었다.

① 진골 귀족은 17관등에서 1관등까지 모든 관직에 임용될 수 있었고, 관등에 따라 자색·비색·청색·황색의 공복을 입었다. ② 신라 하대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며 과거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무 10조를 올린 인물은 6두품 출신 최치원이다. ③ 특정

신분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본관지로 귀향시키는 형벌은 고려 시대에 있었던 귀향형이다.

11.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군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광성보를 침공하였다.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군은 격렬히 항전했지만, 미군에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미군은 물러갔다.

- ① 『조선책략』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 ②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 ④ 이 사건 당시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승리를 거두었다.

11.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은 1871년의 신미양요이다.

② 미국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배상과 조선과의 통상 요구를 목적으로 신미양요를 일으키자 대원군은 이를 물리친 직후 서울의 종로 네거리와 성균관 그리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① 1880년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고종에게 헌상하자 고종은 대신들에게 『조선책략』을 검토하도록 하고 동시에 전국의 유생에게 배포하여 그들의 식견을 넓히려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재야의 유생들이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며, 이후 격렬한 척사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1881년(고종 18년) 2월 이만손, 강진규, 이만운이 중심이 된 영남 만인소는 척사 상소 운동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신미양요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③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사건은 신미양요 발생이전인 1868년의 사실이다. ④ 양헌수 부대의 활약은 1866년에 전개되었던 병인양요 당시의 사실이다.

12. 다음 강령을 채택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 ①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였다.
-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 ③ 암태도 소작 쟁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쳤다.

12.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하고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한 신간회

(1927~1931)의 강령이다.

④ 신간회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한 뒤, 민중 대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반일 시위운동을 전개하려 시도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허헌(許憲)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다수가 일제에 의해 구금되었다.

① 조선 물산 장려회의 창립은 1922년으로 신간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단체는 조선어 학회(1931년 설립)이다. ③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3년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에서 고을의 소작료를 4할로 내릴 것과 1리 이상의 소작료 운반비용을 지주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신간회와 관련이 없다.

13.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전개된 독립 운동은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1943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한국인이 노예적 상태에 있음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in due course)를 밟아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 ㉠ )을 발표하였다.

① 트루먼 독트린

② 포츠담 선언

③ 카이로 선언

④ 알타 협정

13. 정답 : ③

③ 1943년 11월에 열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정상들은 연합국은 승리하더라도 자국의 영토 확장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의 남양 군도와 만주, 타이완, 평후(澎湖) 제도 반환 등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 한국이 자유 독립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적당한 시기에’는 미국 루스벨트의 제안을 채택한 것이고, ‘한국이 자유 독립하게 될 것’은 중국 장제스의 제안을 채택한 것이다.

① 트루먼 독트린(1947. 3. 12)은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이 공산주의 폭동으로 위협을 받고 있던 그리스와 지중해에서 소련의 팽창으로 압력을 받고 있던 터키에 대해 경제 원조뿐 아니라 즉각적인 군사 지원까지 제공할 것을 약속한 선언으로 냉전이 격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② 포츠담 선언(1945. 7)에서는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카이로 선언의 제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한국 독립을 재확인 하였다. ④ 알타 협정(1945. 2)에서는 소련의 대일참전 결정과,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밀약되고 한국의 38선 분할이 결정되었다.

14. 밑줄 친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할 무렵에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에서 산업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통화 개혁을 실시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외국자관을 들여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섬유·가발 등의 수출 산업이 육성되었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적용된 때에는 화학,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시행된 시기에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자리를 잡았다.

- ① 경부 고속 국도가 건설되었다.
- ② 금융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 ③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연간 수출 총액이 늘어나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4. 정답 : ①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실을 찾는 문제이다.

- ① 경부 고속 도로는 1968년 2월 1일에 기공식을 갖고 2년 2개월만인 1970년 7월 7일 준공되었다. 공사는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으로 얻은 차관과 베트남 전쟁 파병 자금으로 추진되었다.
- ② 금융 실명제의 실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이다. ③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가입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의 사실이다. ④ 연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던 1977년의 사실이다.

15.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례도감의궤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 ② 조선왕조의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③ 정조 때 화성 행차 일정, 참가자 명단, 행차 그림 등을 수록한 의궤가 편찬되었다.
- ④ 가례도감의궤의 말미에 그려진 반차도에는 당시 왕실 혼례의 행렬 모습이 담겨 있다.

15. 정답 : ①

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전기부터 왕실의 혼인을 위하여 ‘가례도감’이 설치되고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가례도감의궤』가 편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선 전기의 의궤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다. 현재 전해지는 『가례도감의궤』 중 최초의 것은 1627년(인조 5) 12월 27일 소현세자가 강석기의 딸 강빈(姜嬪)과 혼인한 의식을 정리한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이며, 순종과 순종비의 결혼식을 정리한 1906년의 「순종순정왕후가례도감의궤」가 가장 나중의 것이다.

② 조선왕조의궤는 조선 시대 600여 년(1392~1910)에 걸쳐 왕실의 주요 행사, 즉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 영접 등 뿐 아니라, 건축물·왕릉 조성과 왕실 문화 활동 등에 대한 기록이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어 600여 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조선왕조의궤는 2007년 6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③ 『화성성역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 정조 때 신도시 수원을 건설한 직후인 1794년(정조 18) 1월부터 1796년(정조 20) 9월까지 이루어진 화성 성곽 축조에 대해, 역사(役事)가 계획되어 끝나기까지의 경과와 소요된 경비·참가 인원·제도·의식 절차, 행사 후의 상전(賞典) 등을 기록해 놓았다. ④ 『가례도감의궤』 마지막 부분에는 혼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위와 임무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반차도를 그려 넣어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반차(班次)’는 나누어진 소임에 따라 행렬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반차도는 행사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사용한

복식이나 의장기儀仗旗, 가마 등의 불품, 말의 모습 등이 채색으로 그려져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

16. 조선 후기 평안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것은?

- ① 중국과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의주, 평양, 정주 등지의 상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 ② 영·정조 대에 들어서 문과 합격자 중 평안도 출신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 ③ 두 차례의 호란 직후 사회가 불안정해져 인구가 급감하였다.
- ④ 평안도 사람들은 서북인이라 하여 차별을 받았다.

16. 정답 : ③

③ 평안도는 함경도, 황해도와 함께 17세기에는 물론, 18세기에도 남다른 인구 증가를 보이다가 19세기 순조부터 현종 시기까지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이게 된다. 이는 홍경래의 난과 이후에 시행되었던 여러 조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①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우세한 자본력과 상권을 갖춘 사상 도교가 성장하였다. 또한 평안도는 중국 사신이 오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인(평양 유상, 의주 만상)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본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상업 활동은 조선 후기 이중환의 『택리지』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도 언급되고 있다. ② 16세기까지 평안도의 문과급제자 비중은 극히 미미했으나 숙종 대를 거쳐 영조 대에 이르러 한 단계 상승했으며, 정조·철종 연간의 문과에서는 식년시에서 26.2%의 급제자를 내어 서울과 전국 각 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점했다. 별시를 합하면 정조·순조연간에 서울에 이어 8도 중에서 가장 많은 급제자를 냈다. 하지만 벼슬을 얻는 취직률은 8도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며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었다. ④ ‘평안도(서북민) 차별’은 1811년 홍경래의 난의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조선 시대 평안도에는 일찍이 중앙정부의 차별로 인하여 사대부 즉 사족층의 형성이 어려웠다. 따라서 사족보다는 향인층이 향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을 지나면 중국과의 무역이나 수공업, 광산경영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 나타나 신향층을 이루었다. 그러나 신향층의 경제적 상승을 전제로 한 신분상승 욕구는 수령의 부민에 대한 수탈행위로 왜곡되면서 수령권 대 부민층의 대립이라는 갈등구조를 낳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부민층을 중심으로 한 서북민의 저항은 필연적이었다.

1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가)      | (나)         |  |
|-----------|----------|-------------|--|
| 러·일 전쟁 발발 | 고종 강제 퇴위 | 대동단결 선언의 발표 |  |

- ① (가)-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되었다.
- ② (가)-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포되었다.
- ③ (나)-일제가 ‘105인 사건’을 일으켜 윤치호 등을 체포하였다.
- ④ (나)-일본인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여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17. 정답 : ③

제시된 연표에서 러·일 전쟁의 발발은 1904년, 고종의 강제 퇴위는 190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는 1917년이다.

③ 1910년 안명근 사건을 계기로 데라우치 총독 암살모의 사건을 날조한 일본경찰은 이 사건을 신민회가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1911년에는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등 600여명의 신민회 회원과 민족주의적 기독교인들을 검거하고, 이들 중 105인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큰 타격을 받아 자연 해체되고 말았다

①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 공동회에서 현의 6조가 결의된 것은 1898년의 사실이다. ②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그 관할 구역으로 석도(독도)를 포함시켰다. ④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체결을 통해 조선의 재정고문으로 초빙된 메가타 다네타로는 1905년 1월 ‘화폐 조례’를 공포하고 화폐를 주조하던 전환국을 폐지하였다. 그런 후 조례에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과 환수에 관한 항목을 명시하고, 백동화를 회수하기 위해 전국에 교환소를 설치하였다. 이른바 조선의 화폐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는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이 실시된 것이다.

18. 조선 후기의 사상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ㄱ. 서울 부근의 일부 남인 학자는 천주교를 수용하였다.<br>ㄴ. 정조는 기존의 문체에 얽매이지 않는 신문체를 장려하였다.<br>ㄷ. 복상 기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예송(禮訟)이 전개되었다.<br>ㄹ. 노론과 남인 간에 인성(人性)·물성(物性) 논쟁이 전개되었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8. 정답 : ②

ㄱ.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의 문인들(남인) 사이에서 학문으로 연구되다가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서울 부근 일부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으로 수용하였다. ㄷ. 조선 현종 대 2차례 전개된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별인 서인과 남인의 논쟁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상복을 두고 별인 공리공담(空理空談)이 아니었으며,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인 성리학, 효종의 정통성, 왕권과 신권의 관계 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중대한 정치 현안이었다.

ㄴ. 정조는 전통적 고문을 모범으로 삼게 하는 문체반정을 통해 당시 유행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참신한 문장을 비판하였다. ㄹ. 호락논쟁은 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서 호론(충청도 노론 주기파)과 낙론(서울, 경기 노론 주리파)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던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쟁이다.

19. 밑줄 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9년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한 이 단체는 일제(日帝)의 요인 암살과 식민 지배 기관 파괴를 목표로 삼았다. 이 단체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이념적 지표로 내세웠다.

- ① 이 단체에 속한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②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주도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였다.
- ④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19.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단체’는 의열단이다.

- ① 의열단 단원 김익상은 1921년 조선 총독부 투탄 후 북경 본부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 ②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단체는 조선 혁명군이다. ③ 의열단의 주축 인사가 중심이 되어 1935년 조선 민족 혁명당이 결성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주도한 한국 독립당은 1940년 당시 우파 3당(한국 국민당, (재건)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이 해체한 후 충칭에서 단일대당으로 다시 창당되었다. ④ 한국 광복군의 조직과 의열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20.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ㄴ. 분단 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었다.  
ㄷ.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ㄹ.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 등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ㄹ→ㄴ
- ③ ㄷ→ㄱ→ㄹ→ㄴ
- ④ ㄷ→ㄹ→ㄱ→ㄴ

20. 정답 : ②

ㄱ. 노태우 정권 시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 9월의 사실이다. ㄷ.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은 1991년 12월의 사실이다. ㄹ. 19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미국 간의 준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핵시설 동결,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 핵확산 금지조약(NPT) 복귀 등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ㄴ.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해로)이 이루어졌다.